

빈 점포에 예술 혼 채우니 ... 응답했다 ‘경남의 명동’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국내편

(7) 창원 창동예술촌

창원=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을 초 인기리에 방영된 TV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는 무학소주, 몽고간장, 시민극장 등 마산의 3대 부잣집 아들이 등장한다. 극중 미팅 주선자는 자신의 친구들을 여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한다. “마산 돈은 다 이 세 오빠들이 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마산 출신 남녀 주인공과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상경기를 다룬 이 드라마가 뜨면서 동시에 유명해진 곳이 있다. 시민극장, 불종거리, 오동동 등 추억의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는 창원시(옛 마산) 창동이다. 실제로 ‘응답하라 1994’가 종영된 이후 창동은 전국 각지에서 시민극장 등을 둘러보려는 방문객들로 때마침 특수를 누렸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창동은 과거 ‘경남의 명동’으로 불렸던 마산 최대 상권이자 상점이었다. 특히 창동일대는 조선시대 전국 10곳의 조창(漕倉) 중 한 곳이 자리잡았던 250년의 전통이 깊은 거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1983년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하고, 창원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때 전국 7대 도시였던 마산은 빠르게 쇠퇴했다. 마산의 최대 변화가인 창동과 오동동 역시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거리는 썰렁해지고 점포들도 문을 닫았다. 마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부림시장에서도 상인들이 하나둘씩 점포를 정리했다. 특히 지난 2010년 7월1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도시 슬럼화는 가속됐다. 창동과 인근 오동동 점포 160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비었고 20년 이상 비어 있던 건물도 80%나 됐다.



옛 마산 최대의 상권이었던 창원시 창동은 구도심이 쇠락하면서 활기를 잃었지만 지난 2012년 5월 빈 점포를 작가들의 레시던스로 꾸민 예술촌이 문을 열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창동예술촌의 매력은 골목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아기자기한 작품이다.

그로부터 4년여 지난 지금, 창동은 그 옛날의 창동이 아니다.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부림시장 앞 창동 사거리. 골목해설사 김경년(50)씨의 안내로 본격적인 거리탐방에 나서자 여기 저기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아쉽게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시민극장은 오래 전 상가로 바뀌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불종거리와 오동동 등 옛 지명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창동예술촌’이라는 예쁜 철제 간판이 드리운 골목에 접어들자 다른 동네에 온 듯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지난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골목길과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진열된 쇼윈도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아우라를 풍겼다.

쇠락해가던 창동에 활력을 불어 넣은 건 예술이었다. 사실 1960~70년대 창동은 지역 예술인들의 아지트였다. ‘전원’ ‘망향’ ‘르네상스’ ‘실로암’ ‘비원’ 등 다방과 음악감상실은 마산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화가 최영림, 시인 김춘수, 천상병, 가수 반야월 등이 자주 모여 예술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창원시가 ‘예술1번지’로 되돌아가는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012년 5월 문을 연 창동예술촌은 바로 ‘창동 부활’의 발신지다.

부산 감천마을,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 낡은 마을을 재생시킨 사업이라면 창동 예술촌은 죽어가는 상권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이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창원시는 지난 2011년 3월 ‘빈 점포를 활용한 창동예술촌 조성’을 내걸고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변경관 개선과 골목길의 빈 점포 50개(약 400m)를 임대해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작업실을 제공했다. 창원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담부서(오동동·창동 어시장 담당공무원 6명)를 출범시키는 한편 창동 사거리 인근에 이동 사무실을 마련해 주민들의 현장소

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공무원들이 창원에 위치한 시청사에 출퇴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창동예술촌은 어느 레시던스와 다르다.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공공건물이나 공간을 작가들에게 제공해주는 것과 달리 창동예술촌은 시와 건물주가 6대 4 비율로 임대료를 부담해 작가

지난 2011년 11월에 입주한 화가 박정원(34)씨는 “창동 레시던시는 입주기간이 조금 긴 2년으로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데다 도심에 위치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내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는 입주작가들

되는 아기자기한 불거리와 예술적 감성은 창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다.

창동예술촌의 성공으로 도심의 골목길은 사람들로 넘쳐 나고 덩달아 상권도 부활하고 있다. 창원시청에 따르면 창동 골목 상권을 방문하는 1일 평균 방문객 수는 사업 이전 100명 선에서 현재 1000명 선으로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도심 재생 사업 추진 이후 비어 있던 상점 187개 가운데 81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열었다. 창동거리에 새롭게 등지를 튼 신규 창업점포도 100개가량 된다는 게 창원시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창동예술촌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역사와 전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구도심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250년의 전통을 품은 창동은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예술촌으로 부활했다. 여기에는 창원시청, 상가, 예술인 등 도시재생 사업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밑거름이 됐다. 점포 소유주는 임대료를 대폭 낮추고 예술가들은 골목길 곳곳을 그림과 예술품으로 화사하게 장식했다. 창원시는 토지를 매립해 대형주차장과 야고라 광장 같은 시설을 만드는 등 주변환경 조성을 맡았다. 특히 초창기 공모를 통해 외주 기획사에게 예술촌을 맡겼던 방식에서 탈피, 올해부터 아트 디렉터 이지훈씨를 영입해 창원문화재단이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창원시 도시재생과 이송만(오동동·창동 어시장 TF)씨는 “창동예술촌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지역상권의 활력 보다는 상인과 주민들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변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올해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예산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창원시·건물주 임대료 분담 ... 예술가에 무료 제공 ‘마산예술촌적’ ‘문신예술’ ‘에펠드 창동’ 테마 골목 도시재생사업 후 방문객 10배 증가 ... 상권도 부활



관광객들의 명소로 떠오른 창동예술촌 야경.



197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벽화.

들에게 내준다. 가령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 점포의 경우 창원시는 6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0만 원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건물주 입장에서 점포를 비어두는 대신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시로서는 예술가들을 빈 점포로 끌어들여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이점이 있다. 작가들은 빈 몸으로 입주하되 3평~10평 안팎의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직접 부담한다. 현재 창동예술촌의 70개 점포 가운데 54곳이 작가들의 작업실이고 나머지 점포는 갤러리, 소극장, 체험공간 등 공용공간으로 구성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작가들은 지역 출신은 물론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로 공예, 회화, 조각, 음악 등 다양하다.

의 작품성과를 일반에 선보이는 리아 갤러리, 소극장 등도 문을 열어 예술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예술가들은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즐거운 창동이라는 뜻의 마을기업 ‘창동라운렛’도 발족해 지속 가능한 재생의 첫발을 내딛었다.

무엇보다 창동예술촌의 매력은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골목이다. 마산의 르네상스 시절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마산예술촌적골목, 세계적 조각가 문신의 프랑스 체류시절의 기억을 보여주는 아트공간 등으로 꾸며진 문신테마거리, 쪽샘골목과 오동동 불종거리 입주작가와 상인들이 융합하는 ‘에펠드 창동’ 등은 탐방객들에게 추억과 설렘을 안겨준다. 모퉁이를 돌면 만나게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10-0487234호 특허 제11-1228196호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헬렌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